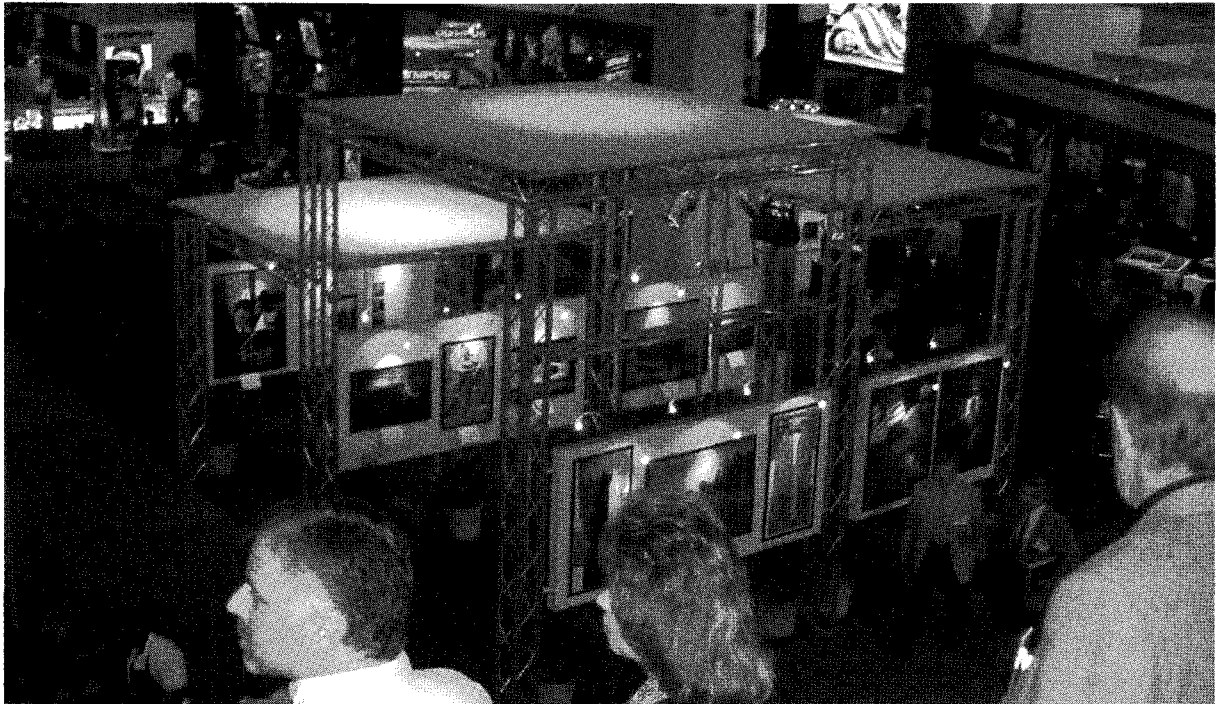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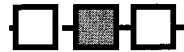


# 최첨단 디지털 이미징 쇼, PMA 2003 지상 중계



PMA 전시회가 지난 3월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으로 미국 라스베가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세계 최대 사진영상 관련 전시회라는 수식어가 무색하지않게 올해도 세계 각국에서 700여개 회사가 참가한 가운데 2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전시장을 찾아 전세계적인 경제불황에도 불구하고 사진영상산업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본 고에서는 이번 전시회의 특징 및 제품 경향, 한국광학기기협회와 한국 공동관으로 참가한 국내 업체들의 성과 등에 관해 정리해보았다. 참고로 제품경향과 시장동향 관련으로는 전시기간 동안에 발행된 「PMA DAILY」지를 참고, 정리한 것임을 밝혀둔다. |편집자 주|



▶ PMA전시회가 지난 3월 2일부터 5일간 미국 라스베가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독일 포토키나 전시회와 함께 사진영상 관련으로 세계적인 규모와 권위를 자랑하는 미국 사진영상기자재전(이하 PMA 2003)이 지난 3월 2일부터 5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 컨벤션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세계 경제불황과 맞물려 지난 가을에 열렸던 세계적

인 Co,dex 컴퓨터쇼와 올해 1월 라스베가스에서 열렸던 전자쇼 CES만 보더라도 예년에 못미치는 저조한 성과를 기록하여 금번 PMA전시회도 개최전부터 많은 우려를 낳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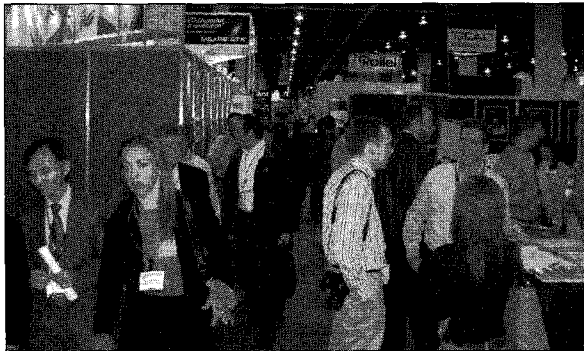
그러나 '기술혁신' 이라는 주제로 펼쳐진 PMA 2003



▶ PMA전시장 입구 전경



▶ 화려한 디스플레이로 이목을 집중시킨 삼성테크윈 전시 부스



▶ 금번 PMA전시기간 동안 총 20,000여명 이상의 관람객이 전시장을 찾았다.



▶ 쌍안경을 선보인 산주의 부스

전시회는 세계 각국에서 700여개 업체들이 참가하여 최첨단 신기술과 제품을 유감없이 선보이며 전시회의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전시기간동안 '포토 이미징 리테일러', '출력 서비스 및 이미징 시스템', 'DQS 디지털 퀵 스타트 세미나', '나이트 스쿨' 등 이미징 관련 업체 및 일반 관람객들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 및 부대행사가 펼쳐졌다.

나흘간 펼쳐진 전시기간 동안 총 20,000여 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전시장을 찾은 가운데 이번 PMA쇼의 눈에 띄는 경향중의 하나는 소비자들을 사진과 디지털 이미징의 세계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전시회측의 다양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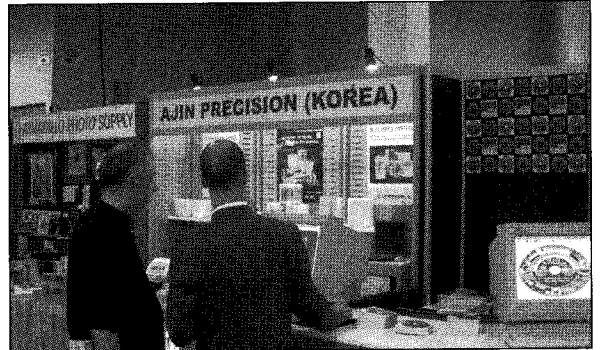
### 최첨단 디지털 솔루션의 집합장

이번 PMA 컨벤션 행사장에 들어섰을 때 누구나 행사장에 전시된 디지털제품의 현란함에 매료되었다. 디지털의 열기는 단지 디지털카메라나 프린터, 스캐너에 국한되지 않고, 이미지 편집 소프트웨어나 카메라 배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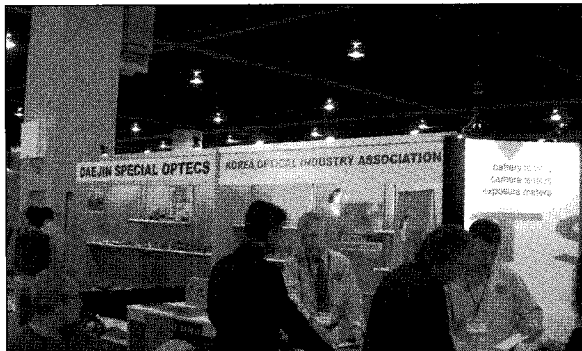
부속 렌즈, 필터, 가방, 삼각대, 어댑터, 케이블, 메모리 카드, 잉크, 종이 등의 무수한 액세서리까지 해당된다. 코닥, 캐논, 소니, 니콘, 올림푸스, 후지 등 모든 주요 사진회사들은 일련의 디지털 카메라와 다른 부속품들을 전시했다. 이와 비슷하게 소니, 올림푸스와 몇몇 다른 업체들 또한 많은 독점적인 디지털 제품들을 소개했다. 캐논은 12가지의 새로운 디지털 카메라와 2가지 DV 캠코더, 3가지의 프린터, 2가지의 스캐너 등을 많은 품목들과 함께 전시했다. 주목할 것은 작년 4.4분기 Unit 면에서 91%를 점유하며 디지털 카메라가 계속해서 캐논의 꾸준한 성장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신의 Foveon X3 기술은 각각, 그리고 모든 픽셀에서 빨강, 녹색, 파란빛을 포착하는 최초의 유일한 이미지 센서를 자랑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모든 다른 이미지센서들은 픽셀당 단지 하나의 컬러만을 기록하기 때문에 이 Foveon X3 기술은 선명도와 색상을 향상시킬 수 있다. 현재 위 기술은 Sigma 모델과 함께 사용가능하다. 한편, 줄어드는 마진의 영향을 받고 있는 포토



▶ 디지털카메라를 선보인 코콤과 클리너 제품을 선보인 다미상사의 부스 전경



▶ 아진정공의 부스 전경



▶ 한국광학기기협회와 나란히 배치된 대진스페셜옵틱스 부스 전경



▶ 메탈포토를 선보이며 인기를 모은 우연엠에스

Finishing 분야는 후지필름, 노리츠의 제품들과 함께 여러 혁신적인 제품들이 전시됐다. 노리츠는 최신 디지털미니랩인 QSS 3101, QSS-31 PRO Digital printer, QSS 3011 DLS 등을 전시했으며, 후지필름은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 Frontier 시리즈를 확장 전시했다.

### 디지털 카메라의 활용을 극대화시키는 이미징 장비의 대거 출시

이번 전시회에서는 디지털카메라의 성장과 관련하여 디지털카메라를 한껏 활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대거 출시됐다.

우선 짚고 넘어갈 것은 현재 디지털카메라의 보급은 선진국일 수록 수치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한 예로 미국에서는 약 30% 가정이 디지털 카메라를 갖고 있다고 추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번 PMA 전시회에서도 디지털카메라나 메모리카드에서 곧바로 데이터를 가

져오도록 고안된 장비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그중에서 코닥에서는 Easyshave Printer Dock600을 출시했는데, 이 신종 프린터에는 코닥의 Easyshave 카메라를 위한 카메라 '독(dock)'이 있어서 한번의 터치로 이미지를 프린터로 전달시키고 관람을 위해 TV로도 연결시키며 또한 카메라로도 다시 충전시킬 수 있다. 이것은 사용자로 하여금 카메라에서 바로 이미지를 얻을 수도, 또한 컴퓨터로도 이미지를 이동시키는 것을 가능케 한다.

한편,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불만중 하나는 메모리카드에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인데 이 또한 한층 쉬워지고 있다는 것을 캐논에서 생생히 보여줬다. 캐논에서 선보인 버블젯 i470D 포토프린터는 다양한 매개체를 위한 메모리 슬롯을 갖고 있어서 컴퓨터에 연결하지 않고도 호환성 있는 캐논 디지털 카메라와 디지털 캠코더를 연결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미지를 가져오는 것이 해결되면 다음의 관심사는 바로 출력인데 출력을 스스로 해결하지 않는 소비자들을 위해서도 또한 간편해진 해결책이 PMA

에서 제시됐다. 스스로 출력을 하지않는 소비자들은 필름처리 과정에서처럼 인화를 위해 포토 아울렛으로 가길 더 좋아하는데 현재 많은 새로운 미니랩 시스템들이 이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후지필름은 Frontier340을 출시를 통해 새로 개발된 프로세싱 메카니즘과 새로운 케미컬 시스템이 Frontier340으로 하여금 고화질 인화물을 만들어 내면서도 더 빠른 프로세싱 스피드를 얻어내게 했다. Frontier340은 다양한 아날로그와 디지털 장치를 둘 다 수용할 수 있으며 프린트와 전자출력을 둘 다 가능케 하는 프로세싱 시스템에서의 경향을 말해주고 있다. 입력을 위해서는 필름, 프린트 슬라이드, 디지털 데이터들을 받아들이며 출력은 프린터, Fujicolor CD, Floppy 와 Zip 디스크 등을 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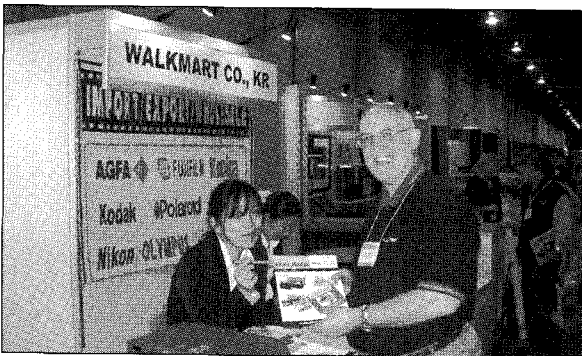
**점 점 작 아 지 는 카 메 라**

우리가 많이 사용하던 필름은 카메라의 한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한다는 결점을 가지고 있었다. 필름한통

을 넣고 찍은 것을 저장해야하는 공간이 카메라 어딘가에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사이즈를 줄이는데에는 어느정도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디지털카메라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가격은 일반 카메라와 비슷하게 맞춰나가면서 기술력을 통해 카메라 크기를 점점 줄여 나갔다.

그 결과는 이번 PMA에서는 작고 세련된 디자인의 디지털카메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펜탁스는 Altoids-size OptioS를 선보였는데, 이 제품은 한 톨의 박하사탕만 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그 케이스만큼 작다. 셔츠 포켓 사이즈만한 포장이라서 여행객들에게 편리할 것은 분명하다.

미놀타 역시 Dimage X에서 약간의 속임수를 씌으로써 사이즈를 줄였다. 비록 렌즈는 위를 보도록 위치해 있지만 프리즘은 시야를 앞으로 만들어 내었다. 한층 새로운 버전인 Dimage Xt는 사방의 치수를 더욱 깎아냈다. 이 제품은 2, 3개월 안에 선적되어 팔릴 것이라고 회사측은 자신있게 말할 정도였다. 그렇다면 카메라는 얼마나 더 작아질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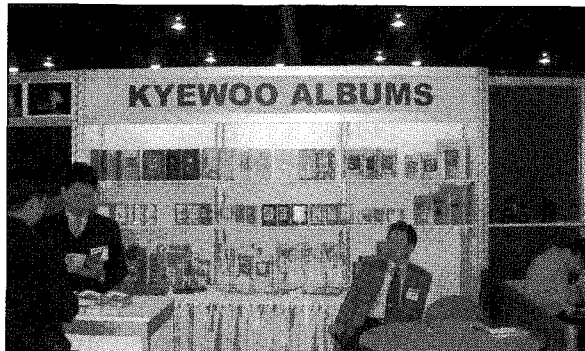
▶ 워크마트 부스에서 바이어와 상담중에 잠시 포즈를 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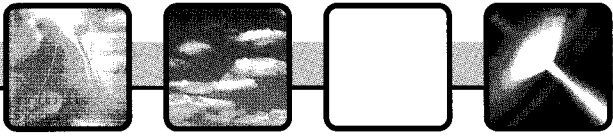
▶ 익성교역의 부스전경



▶ 부스에서 포즈를 취한 유한기획의 유종한 사장



▶ 계우상사에서는 사진앨범과 아기자기한 카드를 전시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



‘나노 테크놀로지(NanoTechnology)’란 용어가 상상력을 붙잡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아직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작은 카메라가 과연 어떻게 관심있는 관람객이라면 아마도 SiPix 부스에서 가늠해 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곳에 전시된 제품중 Style-Cam Blink II는 ‘성냥갑 사이즈’로 표현될만큼 초소형의 카메라이다. 가격 또한 기초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약 40 불(\$)로서 관람객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작아지는 카메라의 렌즈**

카메라의 가장 큰 핵심 품목은 렌즈일 것이다. 렌즈 역시 시그마와 같은 전문제조업체에 의해 해가 갈수록 사이즈가 줄어들고 있다. 이 회사에서는 아직 생산 이전 단계의 상호변경 가능한 80-400mm 줌을 선보이고 있는데, 이 렌즈는 필름이나 디지털 카메라 양쪽에 모두 쓸 수 있고 우리가 기억하는 많은 70-200 스타일 렌즈보다도 작다.

**본체 크기와 반대로 점점 커지는 사진 저장 수**

디지털 카메라가 점점 작아지는데 반해 디지털의 한 영역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는 바로 찍어서 저장되는 사진의 수이다. 사진찍는 것은 좋아도 사진 정리하는 것은 힘들다는 것에 대해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일반 아날로그 필름으로 사진을 뽑았을때보다 디지털카메라로 찍으면 더 많은 양을 쉽게 저장할 수 있다하지만, 정작 사진 한 장을 찾기 위해서 그 많은 디지털 코드를 살살이 뒤지기에는 무리가 있는 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은 바로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가 해준다. 이번 PMA에서 선보인 두 가지는 바로 Prelick 의 Lifetime Photo Organizer와 Adobe Photoshop Album 이다. 후자 즉, Adobe Photoshop Album은 사진이 찍혀진 날짜별로 이미지를 찾아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일반 소비자들에게 더욱 알맞으며 주제나 타이틀별로 찾고 싶어하는



▶ 각종 세트 소품을 선보인 거인부락

프로페셔널이나 기관 사용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PMA 2003’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제 디지털 포토의 황금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다. 사진사들은 역대 어느 때보다도 좀더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일반인들 또한 손쉽고 간편하게 디지털 포토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국내 참가업체들의 성과**

올해는 한국광학기기협회 주관하에 한국공동관으로 총 14개 업체가 참가했으며, 이외에도 삼성테크윈 등 일부 국내업체는 별도의 부스를 가지고 참가했다. 카메라분야에서 세계랭킹 11위 기업인 삼성테크윈은 ‘V-시리즈’ 카메라를 PMA에서 처음 선보였다. 이밖에 5가지의 새로운 Digimax 디지털카메라 및 V4, V3 Flageshipah 과 1메가픽셀 Digimax 101까지 다양한 모델을 선보였는데, 특히 주목할 것은 기존의 가격을 유지하면서 기능은 월등히 높아졌다는 점이다. 금번 전시회에서 새롭게 선보인 제품들은 뛰어난 성능, 세련된 디자인과 사용자 편의의 설계와 함께 경쟁력 있는 가격을 유지하기 때문에 향후 세계시장을 향한 마케팅에 보다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미주광전자 부사장은 “2003 Digimax 제품출시는 삼성카메라의 획기적인 진보를 의미한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쌍안경 분야에서는 쌍안경을 비롯하여 DIGI-BINO 와 거리측정기를 선보인 산주가 상당금액만 190만 불(\$)과 100만 불의 수출계약을 성사시켰다. 카메라 필터, 루페 등 각종 사진관련 기자재 전문업

체인 대진스페셜옵틱스에서는 카메라 필터가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였고, 이밖에 루페, 캠코더형 배터리에서도 많은 상담이 오가는 등 상담금액만 88만 불에 수출계약금액은 40만 불이었다.

광학관련 액세서리 분야에서는 초 극세사 클리너 전문업체인 다미상사가 광학용 카메라 렌즈에서부터 가정 및 사무실 등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용도의 '초 극세사 클리너' 제품을 선보인 가운데 특히 카메라 렌즈 클리너가 큰 인기를 얻어 상담금액 200만 불에 수출계약 금액만도 135만 불에 달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뒀다. 또한 디지털카메라 가방, 알루미늄 케이스, 슬립라이트 5000, 마운트, 필터 등 각종 사진기자재를 선보인 매틴에서는 90만 불의 상담과 30만

불의 수출계약을 성사시켰다.

사진 현상인화기 수출업체인 워크마트는 200만 불의 상담이 오고갔으며, 100만 불의 수출계약을 성사시켰다. 고급 사진관련 백 제조업체인 익성교역은 245만 불의 상담이 오고갔으며 85만 불의 수출계약을 성사시켰다.

이밖에 계우상사를 비롯하여 씨엔지상사 등 사진앨범 업체들이 세련된 디자인과 가격경쟁력을 갖춘 사진앨범 및 카드 등을 선보이며 인기를 끌었으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총 90만 불의 수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매 포토피니싱 분야의 추세와 전망

인도 뉴델리에서 최근에 열린 포토전시회의 컨퍼런스에서 Ingbert Schinitz(Agfa-Gevert AG 회사의 중역)씨는 소매 포토피니싱 분야의 추세와 전망을 보고했다.

그의 추산에 의하면 오늘날 세계전역에서 10억개의 필름 카메라가 사용되고 있으며 2002년에 6천3백만여 개 재충전카메라(반복사용 가능한)와 4억여개 일회용 카메라가 팔렸고, 같은 해 디지털 카메라는 6천만개가 사용 중이며, 2천9백만개가 팔려나갔다. 따라서 결론은 필름 포토산업은 한동안 계속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며 성장해 나간다는 것이다.

표 1. 세계의 필름 소비량 수요 예측 (단위: 백만 롤) 성장률(전년대비)

연도	필름	성장률(전년대비)
1999	3,050	
2000	3,160	(+)3.6%
2001	3,200	(+)1.3%
2002	3,160	(-)1.3%
2003	3,090	(-)2.2%-예측

전반적으로 세계의 필름 소비량은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컬러 필름 사용량은 극동지역, 특히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제 3 세계에서 급속히 늘고 있다. 이러한 증가량은 다른 지역에서의 하향추세를 상쇄하기 충분하며 2005년까지 전반적인 증가 추세조차 예측된다. (표 1 참조)

이러한 필름 사용의 증가는 2005년까지 컬러

Negative photo paper 분야에서 평균 1.5%매년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유럽에서 전체 인구의 4~7%가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으며 80~90%가 여전히 필름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다. 서베이에 따르면, 유럽에서 50%의 디지털 카메라 사용자가 또한 필름카메라를 사용한다고 한다. 일본에서 그 수치는 훨씬 높다. 이점에서 볼 때 미국은 대단히 발전된 디지털 마켓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름은 아직까지 강한 이미지포착 도구로 남아있음을 깨닫게 된다.

36~46%의 디지털 카메라의 사용자들은 필름카메라로 찍는 것보다 더 많은 사진을 찍는다. 디지털 카메라로 연간 찍는 횟수는 일인당 독일이 260컷, 일본이 214컷, 프랑스 269컷, 영국 235컷 등이다.

위 숫자는 일년당 6~10통의 필름과 맞먹는 숫자이며 이는 위의 같은 나라에서 1인당 찍는 평균 필름숫자의 두배 이상이다. 즉 독일 2.1%, 일본 3.3%, 프랑스 2.0%, 영국 1.9% 등이다.

〈출처 : PMA DAILY〉